

# 10. 번식우 관리

## 1. 육성기 사양관리

- 번식우의 육성기는 3~4개월령 이유 후부터 12~13개월령 번식가능 시기까지이다.
- 조사료 위주로 사양하되 12개월령 이전에 조기수정은 생산성을 저하시키므로 지나치게 빨리 키우는 것은 불리하다.
- 육성우의 사양관리 포인트 :
  - 충분한 운동과 함께 양질조사료를 무제한 급여함으로써 춘기발동기 이전에 일당증체량을 500g 수준으로 유지한다.
  - 12~15개월 령에 성성숙이 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
## 2. 번식암소 사양관리

- 번식우의 사양관리는 개체의 번식단계에 맞춘 영양관리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.
- 번식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번식우에게 소요되는 20여 가지의 필수 영양소를 과부족 없이 골고루 급여해야 한다.
- 번식우에 대한 영양소는 과소 또는 과다하게 급여하지 않고, 단백질, 탄수화물, 지방 뿐 아니라 각종 비타민과 칼슘, 인을 포함한 미량광물질 및 소금을 급여한다.
- 초산우 및 경산우의 구분과 함께 임신 전·후기 및 포유기 등에 따라 영양소요구량을 조절해야 한다.



## 10. 번식우 관리

### 3. 송아지 생산비절감을 위한 사육기술

- 한우의 산유량 증진 방안 :
  - 산유량이 높은 암소선발 및 번식에 공여하되 이전 산차 송아지의 60일령 또는 이유시 체중으로 간접 추정한다.
  - 암소의 연령은 5~8세, 산차 5~6산, 분만직후의 체중 467.5kg이고 체중에 대한 체고의 비가 3.6~4.4배일 때 산유량이 많다.
  - 육성기 최적 성장발육 유도로 유선세포의 발육을 촉진시켜야 한다.
  - 임신말기 급여하는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NRC 요구량의 120%로 증량
- 사양관리 개선에 의한 번식능력 증진 :
  - 번식우 1두당 사육면적을 10㎡ 이상으로 늘린다.
  - 전 우군의 신체충실지수를 2.5~3.0의 비율이 90%이상이 되도록 사육한다.
  - 개체 기록카드를 활용하여 개체기록을 유지한다.
  - 최소 4~10개월령만이라도 양질조사료를 급여한다.

